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 사용자 측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하고, 일부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거나 외주화하고, 근무제도를 개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추진하는 급속승진제 폐지 등 임금 억제 공격에도 불만이 크다.

오세훈은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을 추

진하려다 노동자들의 반대에 일단 물러섰다. 사용자 측과 노조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사용자 측은 지난 5월에도 승무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어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라고 하자, 오세훈도 이에 발맞춰 구조조정의 칼을 다시 빼 들었다.

착한 적자

서울시 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매년 1조 원가량 된다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방만하게 늘고 있다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이 적자를 내는 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지금 서울지하철 적자의 상당수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무임수송, 환승 할인, 심야 연장운행 등 교통 복지를 제공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재정을

투입해야 할 ‘착한 적자’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야 적자 보전금을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조차 적자액 대비 지원 수준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낮다.

그래 놓고는 노동자들에게 재정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뜻하는 바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신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더 크게 자극하고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킬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해서도 “진정한 약자”를 아랑곳 않는 “고임금 (노동자의)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인력 감축은 노동자들의 피로도를 더욱 높이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안전 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2016년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 수리 업무를 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비극이 보여 주는 바다. 최근 오봉역에서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망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가 크게 나면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 있다. 침수나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일손이 부족하면 재빨리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지키고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이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도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잠재력이 충분하다. 6년 만에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승리하기를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를 하는 것이다.

당장 파업 효과가 큰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건설 현장이 마비됐다)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됐다. 경총은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열토당토않게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 저항을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윤석열 제작 비극에 견주다니 그 뻔뻔함과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윤석열이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비극을 만든 경찰력 오·남용자 아니던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과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윤석열의 경찰력 배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날 경찰은 공안(집회 통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 경비에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서울 중심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하느라 노동자들의 생존 외침을 깔아뭉개고 있다. 윤석열의 직접 지시에 따라 범정부적 파업 파괴 대책본부(재난안전본부)가 꾸려지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됐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시험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물류와 국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한다.

윤석열이 걱정하는 “국민 경제”는 기업의 경제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을 짓밟아야 기업의 착취 활동이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선 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강경 탄압은 이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몇새 만에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상이 멈췄고,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 반출입량이 10퍼센트대로 뚝 떨어졌다. 철강, 정유 공급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 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일부 마비되고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안달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서울 지하철·철도 파업 등과 결합되는 상황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압은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윤석열 퇴진 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 정세 속에서 세력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만큼, 민주노총 일상 지도부인 상집은 (중집 회의 기다릴 필요 없이) 그저 기자회견, 지역별 집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단 하루일지라도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TV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가?**

- 사회민주주의와 정의당

일시 12월 6일 오후 8시
발제 김인식(노동자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https://bit.ly/1207-meetin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 ...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